

安廓의 『朝鮮文法』(1917)에 대하여 *

정 승 철 **

1. 안학과 『조선문법』
2. 『조선문법』(1917)에서 『수정조선문법』(1923)으로
3. 안학의 『조선문법』과 유길준의 『대한문전』
4. 맺음말

1. 안학과 『조선문법』

自山 안학(1886-1946)은 개화의 시기에 태어나 일제강점기 동안 국학 연구에 전념한 인물이다. 그는 언어, 문학, 역사, 철학, 음악 등 다방면에 걸쳐 당시의 국학 연구자들과는 차별되는 업적을 산출해 내었지만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각 방면의 학계에서 그의 업적이 재조명되고 있다. 국어 학계로 한정할 때, 李基文(1988)과 安秉禧(2003)에서 비로소 안학의 국어 연구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졌다 할 만하다.

안학은 국학 연구의 초기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국어 연구 업적을 꾸준히, 상당수 발표하였다. 그러한 업적 중에 그를 대표하는 것은 『조선문법』(1917)과 『수정조선문법』(1923) 그리고 논문으로서 「조선어원론」(1922)이다. 전자 둘은 별개의 책으로 간행되었으나 후자는 『朝鮮文學史』(1922, 韓一書店)에 附編二(176면-240면)로 실려 출간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이 안학 문법의 체계와 그 변천을 살피는 데 있으므로 여기서는 전자의 두 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¹⁾

그동안 안학의 『조선문법』은 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하여 그의 『조선문법』에 대해서는 『수정조선문법』(滙東書館)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 내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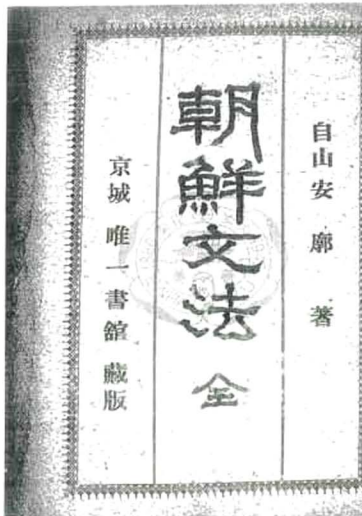
* 이 논문은 2012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술논문 게재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이 논문은 2012년 국어학회·한국방언학회 공동학술대회(6/19-20, 제주대)에서 발표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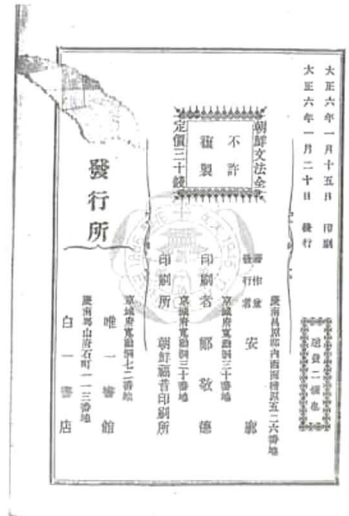
1) 필자는 현재, '自山 安廓의 생애와 국어 연구'라는 제목의 별고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논문에서, 「조선어원론」(1922)을 포함하여 안학의 국어 연구 업적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짐작해 왔다. 이는 후자의 ‘著述要旨’에 나오는 “(再版의 題) 初版에 在하여는 多少 不充分한 點이 잇슴을 領悟함이 잇는지라. 고로 今番 再版에 就하여는 이를 增訂 修補하여 完全을 取함”(밑줄은 필자)이라 한 진술(특히 괄호 속의 ‘再版의 題’란 표현)에 근거하여 초판과 ‘再版’ 사이에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여긴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문법』을 실제로 직접 관찰한 결과, 양자 사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²⁾

인확의 『조선문법』은, 여러 곳을 두루 검색해 본바 현재 그 유일본이 이화여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전한다(<사진 1>, <사진 2> 참조). 이 책은 대정 6년(1917년) 1월 20일에 ‘唯一書館(京城府 寬勳洞 72번지)’에서 발행되었으며 크기는 18.8cm(세로)×13.0cm(가로) 정도로, 거의 46쪽에 가깝다.³⁾ 또 이 책은 ‘著述要旨’ 2면, ‘目錄’ 즉 목차 3면에 본문 87면 그리고 刊記 1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보면 『조선문법』(定價 30錢)에 비해, 본문이 137면(‘著述要旨’ 2면, ‘目次’ 4면 별도)에 달하는 『수정조선문법』(定價 70錢)에서 상당한 증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⁴⁾



<사진 3> 『조선문법』 표지



<사진 4> 『조선문법』 刊記

2) 인확의 『조선문법』과 『수정조선문법』에는 띄어쓰기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관련 내용을 인용할 때 현행 띄어쓰기 규정에 맞추어 제시한다(그 과정에서 문장부호를 새로 부가하기도 한다).

3) 金敏洙(1986)에 따르면, 『수정조선문법』도 46판(18.8cm×12.7cm)이라고 한다.

4) 분량으로만 보면 ‘音의 轉變’(5면→9면), ‘數詞’(4면→7면), ‘動詞’(16면→32면), ‘形容詞’(5면→9면), 그리고 ‘文章論’(19면→35면) 등에서 보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名詞’(10면→6면)와 ‘接續詞’(3면→1면)에서는 분량이 오히려 줄었다.

<사진 1>에서 보듯 안확은 ‘自山’이란 호를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사용하였다.⁵⁾ 그리고 <사진 2>의 간기는, 그가 적어도 1917년 1월까지의 경남 ‘昌原郡 內西面 檜原’(현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주소지를 두었음을 알려 준다.

2. 『조선문법』(1917)에서 『수정조선문법』(1923)으로

안확은 일평생, 여러 분야에 걸쳐 국학 관련 업적을 내는 가운데 딱 두 권의 단행본 문법서를 간행하였다. 『조선문법』과 『수정조선문법』이 바로 그것인데 양자를 대조해 보면, 비록 전면적이라 하기는 어려워도 두 책 사이에 상당한 변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두 책을 비교하는 작업은 곧, 안확의 문법 체계 전반과 그것의 변천 과정을 살피는 일이 된다.⁶⁾

1) 저술 목적의 변경

두 책의 ‘著述要旨’에는 저술 목적이 각각 잘 드러나 있다.

- (1) ㄱ. 本書는 特히 敘述的, 實用的(Descriptive, Practical)의 體로 編纂함.(圖 要旨1)
 ㄴ. 本書는 從來의 誤謬됨을 排하고 公衆的, 普遍的에 依하여 作한 것이라.(圖 要旨1)

(1)에서 보듯 『조선문법』은 “敘述”(=기술)과 “實用”, 『수정조선문법』은 “普遍”과 “公衆”(=실용)에 근간을 두었다. 양자 모두 ‘실용’을 목적으로 하나 전자는 ‘기술적 문법’, 후자는 ‘보편적 문법’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전자에서는 “自然的으로 發達된 法則”(圖 要旨1)을 정밀히 조사하여 국어를 기술하고자 하였으며⁷⁾ 후자에서는 “文法學, 音聲學, 文字學 또는 言語學 等の 原理原則”(圖 要旨2)을 바탕으로 국어의 문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양자 모두에서, 국어의 “一般智識”을 깨우칠 수 있도록 “理論에 流함”을 피하며 “京城言의 發音” 및 “雅言”으로 “其法則

5) 安秉禧(2003:324)에서는 안확이 “30代 中盤인 1920년부터 自山이란 號를 사용”했을 것이라 하였다.

6) 안확의 문법 체계 전반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는 이 논문에서는 『조선문법』과 『수정조선문법』 두 책에 대한 세밀한 비교를 시도하지 않는다. 한편 비교의 편의를 위해 『조선문법』은 圖로, 『수정조선문법』은 罫로 문헌 약호를 써 표시한다.

7) 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標準”(圖 要旨1)을 세우는 데에 두었다.

(☞, ☞ 要旨1)을 서술한다고⁸⁾ 명시하고 있다.

(2) 本書를 著함에 就하여 現代 使用하는 諺漢文混用法을 以하노라. 朝鮮文法에 對하여 純諺文을 쓰지 안코 漢字를 混用함이 不當한 듯하나 本來 朝鮮文學의 形式이 貴族的/平民的 즉 純漢文/純諺文 兩種으로 分立하였다가 現今에 至하여는 此階級을 打破하고 混用으로써 普通文體를 作한지라. 故로 本書의 體도 採用치 안이키 不可하여 如是 混用하노라.(☞ 要旨1-2)

(2)에는 “諺漢文混用法”(=국한문 혼용체)을 써 문법을 기술하겠다는 뜻이 밝혀져 있다. 그리고 『조선문법』을 서술할 때 ‘국한문 혼용체’를 “採用”한 이유가, 그것이 당시의 현실 문체를 대표하던 “普通文體”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안확의 현실적·실용적 문체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와 달리 『수정조선문법』에는 이러한 문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

(3) ㄱ. 或 地方의 語音은 아직 此等 變態에 屛及치 못하여 古音을 尙存함이 잇스니 何 方言에 서는 ‘다, 타’ 等音을 ‘자, 차’로 變成치 안한 것이 此例라. 是以로 吾人이 文法을 學함은 第一 標準語로 統一함이 目的이니라.(☞17)

ㄴ. 吾人이 文法을 學함은 言語를 統一하고 文의 書하는 法을 一致코자 함에 在한 것이라. 言語의 統一은 卽 ‘사투리’를 邑새고 京城 卽 標準語를 使用함이며, 言文의 一致는 卽 文語를 特立할 것이 안이라 言과 文을 同一케 하는 것이라.(☞136)

다만 『수정조선문법』에서는 의사소통 수단의 통일이 강조된다. (3)에서 알 수 있듯, 안확의 문법서 발간의 목적은 의사소통 수단을 “標準語”로 통일하고 그러므로써 “言”과 “文”의 “一致”를 달성하는 데 두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보면 『조선문법』과 『수정조선문법』 두 책은, 전자가 ‘국한문 혼용체’ 즉 문체에 관심을 보이고 후자가 ‘표준어’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에서⁹⁾ 중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2) 용어의 변경

『조선문법』과 『수정조선문법』은 일부 문법 용어상의 相違를 보여 준다. 이를 「조선어원론」과 함께 비교할 때 매우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8) 이는 궁극적으로 “言語統一”(☞ 要旨1)을 목적으로 하였다.

9) 이와 달리 『조선문법』에는 ‘표준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표준어’에 관한 한, 「조선어원론」에 자세히 다룬다.

(4) 문법 용어의 대비

| | 조선문법(1917) | 조선어원론(1922) | 수정조선문법(1923) |
|-----|------------|-------------|--------------|
| 자음 | 父音 | 父音 | 子音 |
| 조사 | 後詞 | 後詞 | 助詞 |
| 어미 | 助動詞 | 助動詞 | 助詞 또는 語尾 |
| 서술어 | 說明語 | 說明語 | 用語 |
| 수식어 | 修飾語 | | 屬語 |

(4)에 제시한 용어 대부분에서 안廓의 「조선어원론」이 『조선문법』과 일치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이들 용어의 수정은 「조선어원론」(1922)과 『수정조선문법』(1923)이 간행된 시기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¹⁰⁾ 『조선문법』과 「조선어원론」에서 조사와 어미에 대해 각기 상이한 품사(즉 ‘後詞’와 ‘助動詞’)를 상정하였다가 『수정조선문법』에서 태도를 바꾸어 이들을 동일한 품사(즉 ‘助詞’)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 (5) ㄱ. 七語族 : 아리안語族, 유랄타이쓰語族, 單纒語族, 南洋語族, 라비디언語族, 세미스語族, 하미쓰語族(安廓 1915:36)
- ㄴ. 七大語族 : 생스크리트語族, 유랄알타이語族, 支那語族, 南洋語族, 南印度語族, 亞羅比亞語族, 埃及語族(㉔)
- ㄷ. 七種 : 생스크리트語族, 유랄알타이語族, 單音語族, 南洋語族, 南印度語族, 세미틱語族, 하미틱語族(조선어원론 216-217)
- ㄹ. 九大원문에는 ‘七大」語族 : 생스크리트語族, 유랄알타이語族, 單音語族, 南洋語族, 中央亞弗利加語族, 南部亞弗利加語族, 아메리카土人語族, 세미틱語族, 하미틱語族(㉕)

(5)는 『수정조선문법』에서, 안廓 문법이 기대고 있는 기초 이론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알려 준다. 어족 구분(7개→9개)의 선명한 차이가 이 문법서에 전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안廓은 아마도 『수정조선문법』에 이르러, 자신의 초기 문법 즉 『조선문법』에서 거의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0) 「조선어원론」이 1922년 이전에 완성되었을 수도 있으나 확인할 방법이 없다. 『조선문법』(1917)과 『수정조선문법』(1923) 사이에 쓰인 안廓의 국어 관련 저술은 「조선어원론」이 유일하다.

3) 서술 내용의 변경

『조선문법』과 『수정조선문법』 양자는 저술 목적이나 용어 이외의 면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를 노정한다.

A. 모음체계와 자음체계

음운론에 관한 한, 두 책은 그리 상세하지 않다. 체계상의 상위만을 들어 비교함으로써 양자의 차이를 간단히 드러내기로 한다.

- (6) ㄱ. 口蓋化母音 : ㄱ,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ㄱ)
 ㄴ. 元母音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ㄴ)

『조선문법』과 『수정조선문법』 두 책은, 모음의 면에서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6)에서 보듯, ‘에, 애’의 지위에 대한 판단에서만 다를 뿐이다. 『조선문법』에서는 이들을 “口蓋化母音”(=ㄱ계 이중모음)으로, 『수정조선문법』에서는 “元母音”(=단모음)으로 이해하였다. 『수정조선문법』에서 비로소, 당시의 모음 ‘에, 애’에 대한 정당한 관찰이 이루어졌다고 할 만하다.

(7) ㄱ. 『조선문법』의 자음체계

| | | |
|-----|-------|------------------------------|
| 性質上 | 一：破障音 | ㄱ, ㄴ, ㄷ, ㅁ, ㅂ, ㅅ, ㅈ, ㅊ, ㅌ, ㅍ |
| | 二：摩擦音 | ㅅ, ㅎ |
| | 三：鼻音 | ㅇ, ㄴ, ㅁ |
| | 四：顫舌音 | ㄹ |
| 機關上 | 一：喉音 | ㄱ, ㅋ, ㅎ, ㅇ |
| | 二：舌音 | ㄴ, ㄷ, ㄹ, ㅅ, ㅈ, ㅊ, ㅌ |
| | 三：脣音 | ㅁ, ㅂ, ㅍ |

ㄴ. 『수정조선문법』의 자음체계

| | | |
|----|----|------------------------|
| 喉音 | 破障 | ㄱ, ㅋ, ㅌ |
| | 摩擦 | ㅇ, ㅎ |
| 舌音 | 破障 | ㄴ, ㄷ, ㄹ, ㅅ, ㅈ, ㅊ, ㅌ, ㅍ |
| | 摩擦 | ㅅ, ㅈ |
| | 顫舌 | ㄹ |
| 脣音 | 破障 | ㅁ, ㅂ, ㅍ, ㅃ |
| 鼻音 | 全鼻 | ㅇ |
| | 共鳴 | ㄴ, ㅁ |

(7)은 두 책에 제시된 자음체계를, 비교의 편의를 위해 표로 만들어 보인 것이다. 『조선문법』에서는 자음의 분류 기준을 “性質”(=조음방법)과 “機關”(=조음위치)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자음들을 단선적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달리 『수정조선문법』에서는 ‘조음위치’와 ‘조음방법’ 사이에 위계를 두어 계층적으로 자음들을 분류하였다. 그 과정에서 ‘ㅇ’을 “喉音”의 “摩擦音”으로 기술하는 잘못을 범하기는 하였지만, 음운부류들 사이의 위계를 세우고 경음을¹¹⁾ 자음체계 속에 포괄하였다는 점에서 후자가 전자보다 한층 더, 음소에 대한 체계적 인식 태도를 견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B. 격 체계

서술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명사의 ‘格’을 다루는 태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8) 主格, 客格, 目的格, 辨格, 與格, 從格, 連格, 呼格(㉠ ㉡)

두 책 모두에서 위와 같은 8개의 위격을 인정하였다. 이때의 “客格”이란 현대적으로는 목적격, “目的格”은 관형격, “辨格”은 주제격, “從格”이나 “連格”은 부사격에 해당한다.¹²⁾ 이러한 명사의 격에 대해 『조선문법』은 제2장(명사)의 제5절(名詞의位格)에서 다루고 있으며 『수정조선문법』은 제9장(조사) 제1절(助詞의定義及種類)에서 다루고 있다. 전자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격’을 파악하는 태도, 후자는 그러한 ‘격’을 조사란 형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으로 파악하는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C. 문장성분

문장성분과 관련해서도 『조선문법』과 『수정조선문법』 두 책은 중대한 차이를 드러낸다.

11) 두 책 모두에서 경음을 “激音”이라 명명하였다. 다만 『조선문법』에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으나 자음의 분류 목록에서 이들이 제외되어 있다.

12) 각 위격에 속하는 구체적인 형태는 『조선문법』과 『수정조선문법』이 동일하다. 주격으로는 ‘-이/가’, “客格”으로 ‘-을/를’, “目的格”으로 ‘-의’, “辨格”으로 ‘-은/는’, 여격으로 ‘에/에게’, “從格”으로 ‘-으로’, “連格”으로 ‘-에서, -에게서’, 호격으로 ‘아/야’ 등이 제시되어 있다.

- (9) ㄱ. 主語, 說明語, 客語, 補語, 修飾語(㉔)
 ㄴ. 第一成分 : 主語, 用語 / 第二成分 : 客語, 補語, 屬語,¹³⁾ 獨立語(㉕)

(9)에서 보듯, 『조선문법』에서는 문장성분을 단선적으로 구분한 데 반해 『수정조선문법』에서는 이를 계층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적 개념의 ‘주성분, 부속성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第一成分”과 “第二成分”으로 1차 구분하고 이를 다시 2차 구분하고 있음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현대 국어문법에서와 같이 문장성분을 계층적으로 이해하는 태도의 단초를 안확이 제공했다고 할 만하다.

4) 서술 내용의 삭제

『조선문법』에 포괄되었던 일부 내용이 『수정조선문법』에서 삭제된 경우도 나타난다. 이들은 대부분, 안확이 보인 초기 문법 및 문법관이 변경된 데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 (10) ㄱ. 普通名詞, 特別名詞, 集合名詞, 有形名詞, 無形名詞, 抽象名詞, 複合名詞, 變體名詞(㉔ 16-18)¹⁴⁾
 ㄴ. 種種의 文典에는 名詞를 分하여 各色으로 論하였나니 그는 다 理論뿐이오, 文法에는 큰 關係가 업는 것이라. 고로 茲에는 그런 區別을 廢하노라.(㉕20)
- (11) ㄱ. 關係代名詞는 動詞의 여러 가지 分詞를 合하여 言語事物及能力의 其意義를 代稱하는 말 : 바, 자, 이, 데, 지(㉔29)
 ㄴ. 此外에 關係를 代稱하는 것이 있스니 ‘바, 것, 수’ 등이 是라. 然이나 此等은 다 獨用치 못하는 것인 고로 接尾語에 屬하니라.(㉕29)
- (12) 名詞 前에 쓰기도 하고 그 後에 쓰기도 하는데 前者를 前置詞, 後者를 後置詞라 하나니라. 불은 기, 기가 불다. 前置詞는 或曰 接頭辭라 하나니라.(㉕51)

(10)은 『조선문법』에서 명사의 부류를 여럿으로 나누었으나 『수정조선문법』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理論”에 불과하여 필요치 않음을¹⁵⁾ 명시한 것이다. 한편 (11)에

13) 이때의 “屬語”는 ‘수식어’를 가리킨다.

14) 이 중에 ‘特別名詞’는 고유명사, ‘有形名詞’는 구상명사, ‘變體名詞’는 전성명사에 대응한다. ‘無形名詞’와 ‘抽象名詞’는 모두 추상명사인데 전자는 ‘마음, 걱정, 재주’ 등 “目で 見치 못하는 事物의 名詞”(㉔17), 후자는 ‘도, 덕, 사랑’ 등 “無形의 말 中에 特別한 性質을 抽한 名詞”(㉔17)를 가리킨다.

15) 姜夔樹(1972:197)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山田孝雄의 『日本文法論』(1908)과 연관 지었다.

서 보듯 『조선문법』은 ‘바’ 등에 대해 관계대명사라는 범주를 상정하였다. 하지만 『수정조선문법』에서는 그것이 “獨用”하지 못하므로 “接尾語”에 속하는 형태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12)에서는 형용사를, 그것의 출현 위치에 따라 “前置詞”와 “後置詞”로 달리 부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¹⁶⁾

각각의 내용을 감안할 때 (10)-(12)는 모두, 이른바 서양 문법의 영향과 관련된 부분이라 할 만하다. 즉 명사 및 형용사를 하위분류하고 관계대명사를 설정한 것이 외래 이론의 직접적 수용에서 비롯한 결과였으리라는 말이다. 하지만 국어 문법에서는, (10-)과 같이 하위 구분된 명사들의 문법적 지위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또 관계대명사를 설정해야 할 필연적 근거도 없다. 그리고 형용사를 출현 위치에 따라 구별하는 태도 또한 국어의 형용사(나아가 동사)가 가지는 특성을 설명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안廓은 『수정조선문법』을 간행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문법 체계 안에서 배제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달리, 서양 이론의 모방이 전제되지는 않으나 현대 문법론 또는 문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을 삭제한 경우도 발견된다.

(13) 總主語, 副主語(圖71-72)

(14) 文章의 修辭上 分類: 理的文, 氣的文, 情的文, 才的文, 辭的文(圖85-86)

(13)은 이른바 이중주어문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면 ‘가을은 달이 밝다’에서 ‘가을은’은 총주어, ‘달이’는 부주어가 된다. 하지만 『수정조선문법』에서는 이중주어문을 인정하지 않고 총주어를 “獨立語”로 분석하였는데¹⁷⁾ 이에 따르면 ‘총주어’ 등의 개념은 굳이 상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하여 안廓은 자신의 문법 체계에서 이들 개념을 제외해 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4)는 수사학적 문체에 관한 사항으로 거칠게 대비하면 ‘理的文’은 건조체, ‘氣的文’은 강건체, ‘情的文’은 우유체, ‘才的文’은 화려체, ‘辭的文’은 만연체 정도에 해당한다. 『수정조선문법』에서는 이러한 문체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같은 변화가 문장론의 대상에 대한 인식차에서 비롯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안廓이 가졌던 문체에 대한 관심의¹⁸⁾ 정도차에서 비롯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분명히 밝혀 말하기 어렵다.

16) 이들은 『수정조선문법』에서 용법의 차이로 간주되어 ‘前置詞’는 “合體法”에서, ‘後置詞’는 “說明法”에서 다루어진다. 현대 영문법에 비추어 볼 때 전자는 한정적 용법, 후자는 서술적 용법에 대응한다.

17) 獨立語는 特別한 處格에 在하여 主語及用語 等に 總關係를 有한 것이다. 且氣는 가을이 서늘하다, 산과 水에 엮던 것이 도훈가.(圖107)

18) 이는 이미 2.1절(저술 목적의 변경)에서 살핀 바다.

5) 서술 내용의 추가

『조선문법』을 증보하여 『수정조선문법』을 만들었으므로 후자에서 추가된 부분이¹⁹⁾ 종종 발견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들 중에 ‘문법 현상’의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 몇 가지를 간단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15) 文語와 口語에 通用치 안는 것: 에·한테~더러, 와과~하고, 매~나~니까, 고로~갈내~기에, 하야~해서, 노~냐, 소서~시오, 하옵나이다~합니다, 하옵나잇가~함닛가, 하옵~하게 (㉔88-90)

(15)는 『수정조선문법』의 제9장 제2절(助詞의 用法)에 출현하는 내용이다. 흥미롭게도 이에서는, 당시에 쓰이던 조사나 어미에서 발견되는 문어와 구어의 차이를 기술하였다.

(16) ㄱ. 思想을 發表함에는 境遇에 應하여 勢力의 輕重緩急이 잇는바 文은 卽 其勢力 如何를 準 適하여 其構造를 故意로 變換함이 잇는지라.(㉔126)
 ㄴ. 文中에 對하여 上下의 語를 對照 關繫하는 것이 잇스니 이를 講하여 呼應이라 하나니라.(㉔130)

(16ㄱ)은 문장론(제3편)의 제5장(文章構造의 變換), (16ㄴ)은 제6장(呼應法)의 내용을 개략한 부분이다. 각각 문장의 변형과 문장성분의 호응에 대해 언급한 부분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통사론의 본령에 근접해 있다 할 만하다. 보편 문법을 지향했던 『수정조선문법』의 기술 태도에서²⁰⁾ 비롯하여 해당 내용들이 선택, 추가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3. 안확의 『조선문법』과 유길준의 『대한문전』

안확은 국어학사에서, 崔光玉(1877-1910)의 『大韓文典』(1908)에 대해 ‘표절’의 의

19) 이를 일일이 밝히는 작업은 가급적 피하고자 한다. 그것이, 『조선문법』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안확의 문법 체계 전반을 살피려는 이 논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20) 이 또한, 앞서 2.1절(저술 목적의 변경)에서 이미 언급한 것이다.

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金敏洙 1957/1960:273). 그의 『朝鮮文學史』(1922) 제6장(最近文學)에 나오는 다음 진술을 보자(이하의 모든 밑줄은 필자).

(17) 俞龜堂의²¹⁾ ... 其著 ‘大韓文典’은 實相 朝鮮語學의 開拓이라. 崔光玉의 ‘大韓文典’이 最先出이라 하나 이는 俞氏의 原稿를 借印한 것인 듯하다²²⁾ 하노라.(121면)

(17)에서 보듯, 그는 최광옥의 『대한문전』이 유길준의 『대한문전』(1909)보다 먼저 출간되었으나 전자가 후자의 원고를 “借印”한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²³⁾ 이는 안확이, 두 책을 직접 보았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또 그의 “朝鮮語學”이 『대한문전』에서 출발했을 개연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간단히 확인하기 위해, 품사론의 첫 번째 장으로서 ‘명사’ 편의 하위 절 목차를 비교해 본다.

(18) ㄱ. 명사의 意義, 명사의 種類, 명사의 數量, 명사의 位格(대한문전)
 ㄴ. 명사의 種類, 명사의 陰陽, 指幼名詞, 명사의 數量, 명사의 位格, 명사의 作法(㉔)

(18ㄴ)이 목차상으로 더 세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감안하면 제목이나 순서에서 양자가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두 책 사이에 긴밀한 영향 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리라는 말이다.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는 ‘助動詞’(=어미) 장을 하나 더 살펴보자.

(19) ㄱ. 조동사의 意義 / 조동사의 種類 : 期節, 階段, 意思(대한문전)
 ㄴ. 조동사의 種類 / 조동사의 意思(㉔)

(19ㄱ)의 ‘階段’은 어미의 위치에 따른 분류, ‘意思’는 기능에 따른 분류를 나타내

21) 俞吉濬(1856-1914)의 호는 ‘矩堂’인데 여기서는 ‘龜堂’으로 되어 있다.

22) 이러한 추정은 아마도 유길준의 『대한문전』 ‘緒言’에 나타나는 다음 진술에 근거한 듯하다; 稿本 易함 이 凡八次に ... 中間 第四次 稿本이 世間에 誤落한야 愛書家의 印佈함이 再版에 至한나 該稿本은 舛謬한 點이 多한야 讀者의 惑을 反滋할 虞가 有함이라.(밑줄은 필자) 유길준의 『대한문전』 원고본은 제목이 ‘朝鮮文典’이다. 따라서 『朝鮮文學史』(1922)를 저술할 당시에 안확은 유길준의 원고본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비로소, 그의 저술에서 유길준의 ‘朝鮮文典’이 언급된다; 發行의 次序로 보면 如左해. 俞吉濬 : 大朝鮮文典·大韓文典, 崔光玉 : 大韓文典 ... 俞吉濬 氏의 文典은 距今 四十年前에 東京서 發刊하였스니(安廓 1927/1994:57).

23) 안확은, 최광옥이 유길준의 ‘原稿’를 “借印”해 강의용 교재를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崔氏는 俞氏의 著書를 가지고 各 地方에 巡廻하여 講習을 식혔스며(安廓 1930/1994:7-8).

는데 이는 각각 (19ㄴ)의 ‘助動詞의 種類’와 ‘助動詞의 意思’에 대응한다. 다만 (19ㄱ)의 ‘期節’은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로, (19ㄴ)에서는 ‘意思’의 하위 항목 ‘時期’ 속에 포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처사는, ‘期節’의 어미에 대해 제3의 범주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다. 이로써 보면 안학의 『조선문법』은 유길준의 『대한문전』을²⁴⁾ 기초로 하되 자신의 문법 인식 체계에 맞추어 그 내용을 수정한 문법서가 되는 셈이다. 두 책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더욱 선명히 표시해 본다.

앞서 2.1절(저술 목적의 변경)에서 『조선문법』은 ‘문체’에 관심을 보였다 했는데 이에 관한 한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은, 익히 알려졌다시피 선구적 업적이다.

(20) 兪龜堂의 西遊見聞 … 其文體는 諺漢文混用體의 代表가 된 것이다.(조선문학사 121)

(20)은 『조선문학사』(1922)의 제6장(最近文學)에 나오는 진술인데 안학이 “諺漢文混用體”(=국한문 혼용체)의 대표로서 『서유견문』을 지목한 대목이다. 이로써 문체의 면에서 안학의 『조선문법』에 미친 유길준의 영향이 가히 짐작된다. 이는 용어의 면에서도 마찬가지다(2.2절 참조).

(21) ㄱ. 父音, 接續詞, 助動詞, 說明語, 修飾語(대한문전)

ㄴ. 父音, 後詞, 助動詞, 說明語, 修飾語(☒)

(22) 兪吉濬 氏는 後詞를 接續詞의 一種으로 認하였나니 此等 說論이 다 文法上 原理를 捨한 것 이라.(조선어원론 190)

(21)은, 『대한문전』의 ‘接續詞’(=조사)가 『조선문법』에서 ‘後詞’로 대응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면²⁵⁾ 양자가 동일한 용어를 택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흥미롭게도 (22)에서는 그가 ‘조사’에 대해 유길준의 용어(즉 ‘接續詞’)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마저 밝히고 있다.

모음과 자음에 관해서도 양자는 거의 평행한 인식을 보여 준다. 『대한문전』과 『조선문법』 모두에서, 당시의 ‘에, 애’를 이중모음으로 이해하며 경음을 “激音”으로²⁶⁾

24) 이하의 『대한문전』은 모두 유길준의 것을 가리킨다. 구별을 위해 최광옥의 『대한문전』에 대해서는 저자명을 덧붙인다.

25) 최광옥의 『대한문전』에서는 이 ‘조사’마저도 ‘後詞’라 하였으므로 안학의 『조선문법』에 최광옥의 영향이 전혀 없었던 것 같지는 않다.

26) 다만 경음을 “二個”의 동일 자음의 “슴”으로 본 『대한문전』과 달리 『조선문법』에서는 이를 단일 자음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듯하다; 此 激音을 同一한 兩音이 一時에 并發하는 것 卽 重父音이라 하며 又 或은

부르고 있는 것이다(『조선문법』의 경우는 2.3절의 A항 참조).

- (23) ㄱ. 複重母音은 三個의 母音이 連合하여 成하는 者이니 假令 ‘내, 게’(대한문전 12)
 ㄴ. 二個의 同一한 父音의 初發音이 合하여 一個 父音을 成하는 時는 其音이 激促한 故로 ‘激音’이라 稱하나니라. 假令 ㄱ, ㄷ, ㅁ, ㅂ, ㅅ(대한문전 9)

아울러 2.3절의 C항에서 살펴보았듯, 문장성분을 단선적으로 분류한 점도 양자가 공통된다. 이들을 나열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4) ㄱ. 主語, 說明語, 客語, 補足語, 修飾語(대한문전)
 ㄴ. 主語, 說明語, 客語, 補語, 修飾語(☒)

‘補足語’와 ‘補語’의 차이를 제외하면 양자는 동일하다. 이마저도 용어상으로만 다를 뿐 기능상으로는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문전』과 『조선문법』 사이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부정하기 어렵게 한다. 더욱이 서양 문법의 모방이라는 면에서 두 책이 공통성을 드러내는 다음 사항들에²⁷⁾ 이르러서는 후자가 전자의 문법에 기초하였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 (25) ㄱ. 特立名詞, 普通名詞, 變化名詞(대한문전)
 ㄴ. 普通名詞, 特別名詞, 變體名詞(☒)²⁸⁾
 (26) ㄱ. 關係代名詞: 一代名詞가 語句의 前或後에 在하여 其上或下의 語句를 聯關하는 同時에 又 其意義를 表出하는 者(대한문전 28)
 ㄴ. 關係代名詞: 動詞의 여러 가지 分詞를 合하여 言語事物及能力의 其意義를 代稱하는 말(☒)²⁹⁾
 (27) ㄱ. 前置 形容詞와 後置 形容詞(대한문전)
 ㄴ. 前置詞와 後置詞(☒)

(25)-(27) 또한 『대한문전』과 『조선문법』에 공히 존재하는 문법 사항이다.²⁹⁾ 이

本音의 들만큼 단々하게 發한다 하니 그러면 本音이 強大할 뿐이요, 短激의 聲이 안이니라.(6면) 이로써 보면 안廓의 『조선문법』(1917)은 경음을 단일 자음으로 인식한 첫 국어 문법서가 되는 셈이다.

27) 이들의 도입은 서양 문법서로부터가 아니라 일본 문법서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다(姜馥樹 1972: 76-100).

28) 이 이외에도 『조선문법』에서 ‘集合名詞, 有形名詞, 無形名詞, 抽象名詞, 複合名詞’ 등을 더 들고 있다(2.4절 참조).

29) 이들은 국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 않아, 『조선문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조

처럼 서양 문법을 모방한 데 있어서도 두 문헌이 일치하는바 이들은 후자에 대한 전자의 영향 관계를 실증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다음 사항의 출현도 『대한문전』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28) ㄱ. 單主語 : 개가 간다, 複主語 : 개와 말이 간다, 總主語 : 가을은 달이 밝소(대한문전 92-93)

ㄴ. 單主語 : 소가 간다, 複主語 : 소와 말이 다라난다, 總主語 : 가을은 달이 밝다, 副主語 : 가을은 달이 밝다(圖71-72)

『조선문법』에서 ‘단주어, 복주어, 총주어’를 상정한 것이 『대한문전』과 관련 있으리라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총주어’에³⁰⁾ 대해 추가로 (28ㄴ)에서 “副主語”를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안확이 『대한문전』의 문법을 받아들여 자신의 인식 체계에 맞추어 이를 수정하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그의 문법에서 『대한문전』이 완전히 극복된 것은, 그 이후 6년이 지나 『수정조선문법』에 이르러서의 일이었다.

4. 맺음말

『조선문법』과 『수정조선문법』 두 책은 6년의 격차를 지닌다. 따라서 그러한 격차 속에 그 몇 년간, 안확이 접한 여러 문법 관련 저술들이 놓이게 된다. 이로부터 다음 두 가지 궁금증이 제기된다. 첫째, 안확은 어떤 문법서를 바탕으로 『조선문법』(1917)을 구성하였을까. 둘째, 『수정조선문법』(1923)으로의 ‘修正’에는 어떠한 문법서들이 영향을 미쳤을까.³¹⁾ 이들 문제 중에 이 논문은 전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안확의 문법은 유길준의 『대한문전』을 출발점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안확은 『대한문전』의 체계를 용어를 바탕으로 초기 문법서 『조선문법』을 구성하였다. 한국어 학사를 되돌아볼 때, 안확의 『조선문법』은 유길준 문법의 거의 유일한 계승자였던

선문법』에서는 삭제되었다(2.4절 참조).

30) 姜馥樹(1972:99)에 따르면, ‘총주어’ 개념은 일본 문법서의 영향에서 비롯하여 『대한문전』에 도입된 것이다.

31) 이에 대해서는 姜馥樹(1972:196-203)와 具本寬(2003)에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다.

셈이다. 그렇더라도 그의 『조선문법』은 『대한문전』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었다. 『대한문전』의 체제가 국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자신의 문법 체계를 새로이 내세웠던 것이다. 『대한문전』의 8품사(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후사, 접속사, 감탄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10품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후사, 접속사, 감동사, 조동사)를 설정한 데서 이러한 그의 문법 서술 태도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안廓이 보인 초기의 문법 체계는 아주 수준 높은 것은 아니었다. 서양 문법을 모방한 문법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명백히 보여 준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조선문법』에 “多少 不充分한 點이 잇슴”을 깨달아 “이를 增訂 修補”(주 要旨2)하여 『수정조선문법』을 간행하였다. 그는 『수정조선문법』에서 자신이 새로이 획득한 문법 체계에 따라 자신의 초기 문법을 상당 부분 수정하였다. 이러한 수정과 문법 사항의 보충에, 『조선문법』의 간행 이후 그가 두루 접한 보편 문법이 관여하고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주제어 : 안廓, 조선문법, 수정조선문법, 유길준, 대한문전, 보편 문법

투고일(2012. 5. 1), 심사시작일(2012. 5. 3), 심사완료일(2012. 5. 17)

<참고문헌>

- 姜馥樹(1972), 『國語文法史研究』, 형설출판사.
- 고영근(1998), 『한국어문운동과 근대화』, 탑출판사.
- 權五聖·李泰鎭·崔元植 編(1994), 『自山安廓國學論著集』, 여강출판사.
- 具本寬(2003), 「安自山の 언어관과 국어 연구」, 『어문연구』 31-1, 367-391.
- 金敏洙(1957/1960), 「<大韓文典>攷」, 『국어문법론연구』(金敏洙 著), 통문관, 269-333.
- _____(1986), 「安自山 <修正 朝鮮文法> 解說」, 『歷代韓國文法大系』(金敏洙·河東鎬·高永根 編) 1-26, 탑출판사.
- 安秉禧(2003), 「安廓의 生涯와 한글연구」, 『어문연구』 31-1, 321-344.
- 安 廓(1915), 「朝鮮語의 價値」, 『學之光』 4, 36-38.
- _____(1922), 「朝鮮語原論」, 『朝鮮文學史』(安廓 著), 韓一書店, 176-240.
- _____(1923), 『修正 朝鮮文法』, 『歷代韓國文法大系』(金敏洙·河東鎬·高永根 編) 1-26, 탑출판사.
- _____(1927/1994), 「竝書不可論」, 『自山安廓國學論著集』(權五聖·李泰鎭·崔元植 編) 4, 여강출판사, 55-61.
- _____(1930/1994), 「各國의 綴字論과 한글問題」, 『自山安廓國學論著集』(權五聖·李泰鎭·崔元植 編) 4, 여강출판사, 3-8.
- 吳玉梅(2008), 「초창기 한국어 문법 용어에 대한 연구: 1897년~1937년 문법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서울대).
- 俞吉濬(1909), 『大韓文典』, 『歷代韓國文法大系』(金敏洙·河東鎬·高永根 編) 1-06, 탑출판사.
- 李基文(1988/1994), 「安自山の 國語 研究: 특히 그의 周時經 批判에 대하여」, 『自山安廓國學論著集』(權五聖·李泰鎭·崔元植 編) 6, 여강출판사, 77-99.
- 정승철(2003), 「<<국어문법>>(주시경)과 English Lessons」, 『국어국문학』 134, 73-97.
- _____(2009), 「어문민족주의와 표준어의 정립」, 『인문논총』 23,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59-180.
- 崔光玉(1908), 『大韓文典』, 『歷代韓國文法大系』(金敏洙·河東鎬·高永根 編) 1-05, 탑출판사.

<Abstract>

An Hwak and his book *Joseon Munbeop*(1917)

Jung, Seung-chul *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the systems of An Hwak(1886–1946)’s grammar and its changes. To achieve this, I compared his book *Joseon Munbeop*(that is *Korean Grammar*, 1917) with *Sujeong Joseon Munbeop*(that is *Korean Grammar Revisited*, 1923) and *Daehan Munjeon*(that is *Korean Grammar*, 1909) written by Yu Giljun (1856–1914). Through this comparison, I verified that An Hwak’s *Joseon Munbeop* (1917) must be influenced by Yu Giljun’s book *Daehan Munjeon*(1909) in that the former was similar to the later in the format of a book, grammatical terms, etc. Also, I argued that he published *Sujeong Joseon Munbeop* as the revision and supplement of *Joseon Munbeop* in 1923, through adopting the grammatical terms and items which was based by the universal grammar.

Key Words : An Hwak(安廓), Korean Grammar, Korean Grammar Revisited, Yu Giljun(兪吉濬), universal grammar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